

삶과 학문의 조화를 꿈꾼 영문학자 ‘나영균’

최 영 |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 교수

1. 한국에서의 '영문학'

한국에서 영문학이라는 학문은 개화기의 서양문화 및 문학의 이입 과정과 1920년대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일부 작가들의 번역된 작품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오다가, 해방과 함께 대학에 영문학과의 설립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 미국, 영국 등지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서 영문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영문학을 소개하기 위해 번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일제 치하와 해방의 공간에서 영문학을 위시한 외국 문학을 전공하신 선배들의 삶과 학문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 분들의 족적이 곧 한국에서의 영문학이라는 학문이 수용되고 정착되고 발전해 나가는 여정의 시발점에서, 외국 문학으로서의 영문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지향점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선배들이 제시한 지향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외국 문학을 원전으로부터 정확하고 명료하게 번역을 해서 소개하는 작업이다. 일제 하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선배들은 무차별적으로 밀려들어오는 소위 선진 문물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실감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일본어를 거친 중역이 아닌, 원전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부분 번역에 적극 참여해서 하나의 전범을 남기게 된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우리 문학을 바깥 세상에 알리는 작업의 중요성이다.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작업은 근자에 와서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앞의 선배들 가운데서는 일찍이 이 작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한국의 시와 소설을 소개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마치 새로운 지도를 그리듯이 어려운 일을 해온 분들이 계시다.

영문학을 한국에 소개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려던 초창기 학자들의 노력과 비전과 열정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영문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영문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할 것인가라는 화두에 진지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영문학자 나영균 교수가 바로 이같은 선각자적 비전을 가진 영문학자들 밑에서 수학하는 행운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해방이 가져온 전환기에 영문학을 처음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소수의 학자들 가운데서 나영균 선생의 위치는 독특하다. 이 시절 대학 교육을 받은 극히 소수

의 여성들이 주로 가사나 보육을 전공하던 경향과는 달리 영문학을 선택한 것이며, 결혼과 함께 모든 공적인 역할로부터 자의든 타의든 간에 스스로를 차단했던 여성들 속에서 가정과 교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병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성학자들의 세계에서 당당히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각인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선생이 처한 대단히 좋은 가정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선생의 명석한 두뇌와 꾸준한 노력,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II. 생애와 학문적 토대

나영균 선생은 당시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대단한 행운을 타고난 인물이다. 선생은 1929년 만주의 봉천에서 사업가인 부친과 개성 호수돈여고 출신의 신여성인 모친 사이에서 출생한다. 선생의 부친은 일본 유학을 한 인텔리로 한국 최초의 화공학 엔지니어로 만주에 고무 공장을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던 분이다. 이 분은 결혼한 부인을 일본의 여자 고등 상업학교로 2년간 유학을 보낼 정도의 앞선 의식을 지닌 분이다. 이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나영균 선생은 초등학교를 만주에서 마치고 서울 경기고녀로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여학교 시절은 태평양 전쟁이 치열해지던 시기로 학생들은 군수물자인 운모를 벗기는 소위 근로 봉사라는 노역에 동원된다. 선생의 문학에의 경도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

가 만들어준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자생한 것이다. 선생은 부친의 서재에서 세계문학전집을 위시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문학의 세계에 들어선다. 여학교에서 영어는 적성국 언어이므로 2학년 때까지만 배우고 말지만, 선생은 앞으로 영어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부친의 권유로 영어를 독학한다.

해방되던 해 봄 여학교를 마친 선생은 부모의 뒤를 이어 동경 유학을 준비하지만, 그곳에 공습이 심해지자, 서울에서 이화여전에 진학한다. 유학의 길이 좌절된 선생은 이화여전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이화여전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본인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서는 얻지 못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눈뜨게 된다. 시인 정지용, 김

상룡, 김갑순 선생들의 가르침 속에서 문학의 멋과 맛에 대해 눈이 뜨이게 된다. 그러나 독학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선생은 초급 수준의 영어 교육에서 아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치 못하

“ 영문학을 한국에 소개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려던 초창기 학자들의 노력과 비전과 열정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영문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영문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에 진지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 서울 사범대학으로 다시 입학한다.

그러나 당시 서울대학은 국립대학 안을 놓고 좌우익 진영이 격렬하게 대립하던 시기라 학문에의 갈증을 채우려던 선생은 다시 실망을 하고 이화여전으로 되돌아온다.

선생은 아마도 자신이 스스로 학문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당시의 어디에서도 선생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만한 교육적인 환경은 없었다. 선생은 도서관에 틀어 박혀서 선교사들이 남기고 간 영어 소설들을 부지런히 읽는다. 대학

1학년 여름 방학 때는 빈 강의실에 나와서 전 20권으로 된 웰즈의 “세계 문화사 대계”를 독파한다. 선생은 당시의 학교가 좌우익 간의 대립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느 편에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을 한다. 선생의 이같은 탈정치적인 자세는 아마도 당시 여학생들의 좌익사상으로의 경도가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관적 사고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선생은 따라서 어느 파벌이나, 집단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지닌다. 그것은 자신의 주관과 판단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생이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선생은 청개구리적 기질이 있음을 시인한다. 선생은 범주화되고 어떤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해서 기질적으로 혐오감을 갖는다. 이것은 아마도 선생의 예술가적 기질의 표출일 것이다.

선생은 대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계획한다. 당시 총장 선생이시던 김환관 박사는 선생에게 하버드 대학으로의 유학을 알선해 준다. 그러나 앞서 동경유학이 좌절됐을 때처럼 이번에도 한국동란으로 인해서 선생의 꿈은 다시 좌절된다. 그리고 선생 집에 피신하고 있던 약혼자와 급히 결혼을 하게 된다. 부산 피난 캠퍼스에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코리아 타임즈 기자를 잠시 하던 선생은 1954년 대학원을 마치고 그 다음해 6개월 된 딸과 남편을 두고 미국 공보원의 장학금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캔사스 주립 대학에서 1년간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짧은 유학 시절 선생은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선생의 학자로서의 길은 아마도 이때의 충격을 이겨내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선생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무사히 석사 과정을 마치지만, 공부해야 될 양과 질에 있어서 개안이 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귀국해서 모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선생은 영문학

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신비평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꼼꼼히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작업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자신의 학문 세계를 이루어간다.

선생은 그 후 런던 대학에 잠시 수학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비평의 글이나 이론에 치중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 훈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방향은 지금까지 선생이 독학하면서 깨우친 것과 유사한 방법인 것이다. 선생은 자신의 주관을 분명히 하고서 작품을 읽고 해석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깨우치도록 자극을 주는 수업을 진행한다. 스스로 많이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 작품을 보는 감식안이 생기는 것이며, 이 같은 감식안을 바탕으로 문학의 이론이나 비평의 글을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생은 생각한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 학생 스스로 더 공부하고 싶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Ⅲ. 학문적 발자취

선생은 귀국해서 당시 초창기에 영문학자들의 학회였던 한국 영어영문학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문학 전집 중 영미 문학의 번역 작업에 참여한다. 이때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의 사람들’과 버지니아 울프의 ‘달리웨이 부인’을 번역하고, 또 셰익스피어 전집 번역 가운데서는 ‘헨리 5세’를 번역한다. 당시의 영문학자들이 번역 작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서 번역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선생 또한 적극 참여하게 된다. 번역과 아울러서 당시의 영문학자들은 교재를 새로이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선생 또한 이런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한다. 이와 같은 선생의 태도가 아마도 선생을 은퇴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하게

만든 요소가 됐을 것이다.

학교에서 영미 소설과 셰익스피어를 강의하고 번역을 하는 외에도 선생은 50년대 말부터 '70년대 까지 활발하게 잡지와 신문지 상에 문학 대담, 수필, 평론의 글을 기고한다. 선생은 다작이 아니고 과작인 탓도 있지만, 글 하나 하나에 대단한 정성을 기울인다. 선생의 글은 명징하고, 간결하고, 품격과 유모어를 갖춘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글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면, 선생의 글은 바로 예리한 통찰력과 심미안을 바탕으로 절제와 긴장을 놓지 않는 삶의 자세와 무관치 않다.

항상 지적인 호기심을 지니며, 계속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선생은 현역의 젊음을 지닌다.

선생의 개성 있는 글들은 그러나 '70년대 후반 정치적 상황이 더욱 팽박해지면서 더 이상 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선생은 정치적인 것과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지만, 단상을 담은 글에서는 시대의 부조리한 면을 부드럽지만, 신랄하게 정곡을 찔렀던 것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침묵을 택한 선생은 이제 학문적인 글을 쓰고 번역하는 일에 더욱 몰두한다.

선생의 연구는 1975년의 박사 학위 논문인 '콘래드 연구'를 기점으로 '전후 영미 소설', '영미 여성 소설의 이해'로 학문적 관심의 폭과 깊이를 더해간다.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40년에 걸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선생은 주로 모더니즘 계열의 영미 작가들 — 조이스, 로렌스, 울프, 콘래드, 포크너, 헤밍웨

이, 솔 벨로우 — 을 위시하여,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희극 작품들을 강의한다. 선생의 전공 영역은 영미 소설이지만, 셰익스피어를 위시하여 서구 연극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다. 선생은 은퇴 후에도 셰익스피어의 향리인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어펜 에이븐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셰익스피어 학자들의 학술 모임에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하고 5년마다 열리는 셰익스피어 국제 학술대회에도 꼬박 참석하는 열의를 지니고 있다.

나영균 교수의 영문학자로서의 두드러진 업적을 번역을 통해서 영미 문단의 주요 작가들을 소개해

온 일이다. 선생은 모든 일에 완벽주의자여서 번역에 있어서도 다작이 아니라 과작이지만, 번역 작품들은 하나같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원문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또 다른 창작으로서의 번역 작품들이다. 셰익스피어의 "헛소동",

“

나영균 교수의 영문학자로서의 두드러진 업적을 번역을 통해서 영미 문단의 주요 작가들을 소개해 온 일이다. 선생은 모든 일에 완벽주의자여서 번역에 있어서도 다작이 아니라 과작이지만, 번역 작품들은 하나같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원문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또 다른 창작으로서의 번역 작품들이다.

”

"중으실대로", 레싱의 "마사 퀘스트", 콘래드의 "노스트로모", "어둠의 속",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유려한 문체로 인해서 번역의 고전이 되고 있다.

나영균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수천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선생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아마도 선생의 강의를 통해서 영문학의 세계로 인도되었던 경험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조화롭게 양립시키는 선생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

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선생은 문학적 감수성을 지닌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적인 자극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선생 스스로 꾸준히 활동하는 것 자체로 가르침을 전하는 분이시다. 현재 한국의 영문학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여성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선생이 이루어 놓은 수준의 문학적 감식안, 정확하고 아름다운 문장의 번역을 과연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해방을 전후한 문화적 공간에서 외국 문학으로서 상당한 업적을 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의 문화적 배경을 익혀 가면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번역한 것은 이 시대 영문학자들이 한문학과 일본 문학 등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선택한 학문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영균 선생이 교수와 학자 그리고 가정 생활이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지혜롭게 해 낼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선생의 뛰어난 능력에 기인한다. 선생은 명석한 두뇌와 예술가적 감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로 평생을 지내온다. 학문에 대한 선생의 열정은 두 번에 걸친 유학의 꿈이 좌절되었기에 오히려 더욱 내면화되면서 깊이로 승화한다. 선생의 절제와 관조의 태도,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내는 강인

함과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투철함, 그리고 현역의 자세를 유지하려는 지적 긴장 상태가 한데 어우러져서 선생만의 분위기와 매력을 만들어낸다. 선생은 1983년 여성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영어영문학회 부회장이 되고 10년 후에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치른다. 선생의 저술 활동은 은퇴 후에 더욱 활발해져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조이스와 울프, 콘래드 같은 작가들의 전기 시리즈를 완성했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극작가 시릴 터너의 '복수자의 비극'을 번역하고, 그 동안 발표되어 왔던 수필과 칼럼을 모아서 『안경너머 세상』이라는 에세이집을 출판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래서 학문을 하는 자세가 그대로 일상 속에 스며있는 삶을 목표로 살아온 나영균 선생은 지금도 그 꿈을 향해 가고 있다.

■

최영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오를라호마 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런던 대학의 School of Orient and African Studies (SOAS)와 미국 바나드 칼레지의 방문교수를 지냈다. 현재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저서로는 공저로 「연극의 이해」, 「소설과 사회사상」, 번역으로는 「세일럼의 마녀들」, 「보호주의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셰익스피어와 현대 영미 극작가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